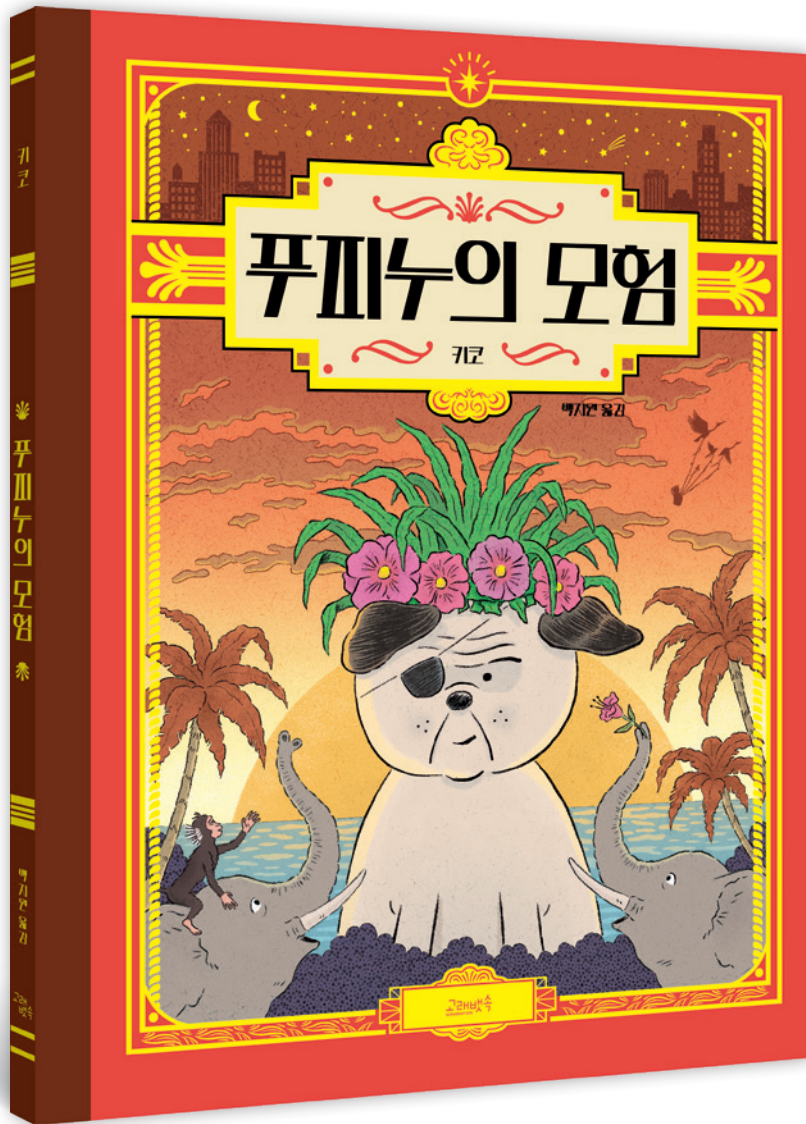


고래बाट속 독후 활동지

4~7세용

어린이들이 책을 덮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푸피누의 모험

키코 글그림 | 백지원 옮김 | 230x290mm | 32쪽 | 양장 | ISBN 979-11-93138-72-4 | 2025.04.07 | 16,000원

다음 중, 책 속 이야기에서 주인공 애꾸눈 잭(푸피누)이(가) 했거나 겪은 일을 모두 골라 체크해 보세요.

모험 일지

- 그날의 마지막 배에 오르기

- 목숨 걸고 고약한 피조물들 상대하기

- 포기하지 않고 행운의 별을 믿기

- 코끼리가 전해 주는 아득한 시간의 저편 이야기 듣기

- 푸르디푸른 성을 가진 왕국의 주인들과 친구 되기

- 야자수 잎을 엮어 밤에 덮기 좋은 이불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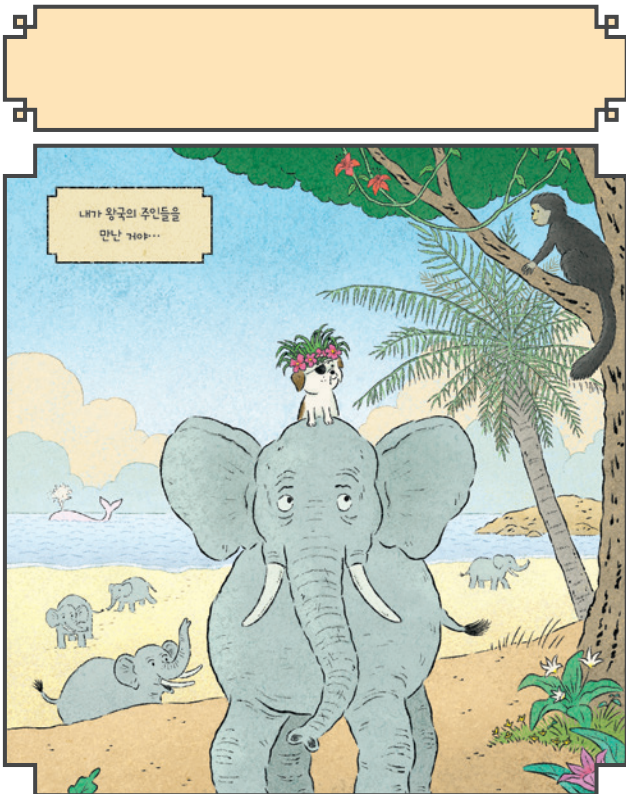
-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들려오는 신비로운 목소리 따라가기

- 파도를 타고 와서 바람을 타고 떠나기

안녕! 난 어디로든 떠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험가,
푸피누야!



한 장 한 장 엮서 같은 책 속 장면들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카드를 만들었어요. 각 카드에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내용을 떠올리며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 보세요. (예시: 세상 단 하나뿐인 모험가카드, 행운의 별 수집가카드)



푸피누는 '보통의 자그마한 존재'로 살아가는 일상 속 주변에 있는 것들로 상상 속 모험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다음 장면에서, 푸피누가 지어낸 모험 이야기의 소재가 된 것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쳐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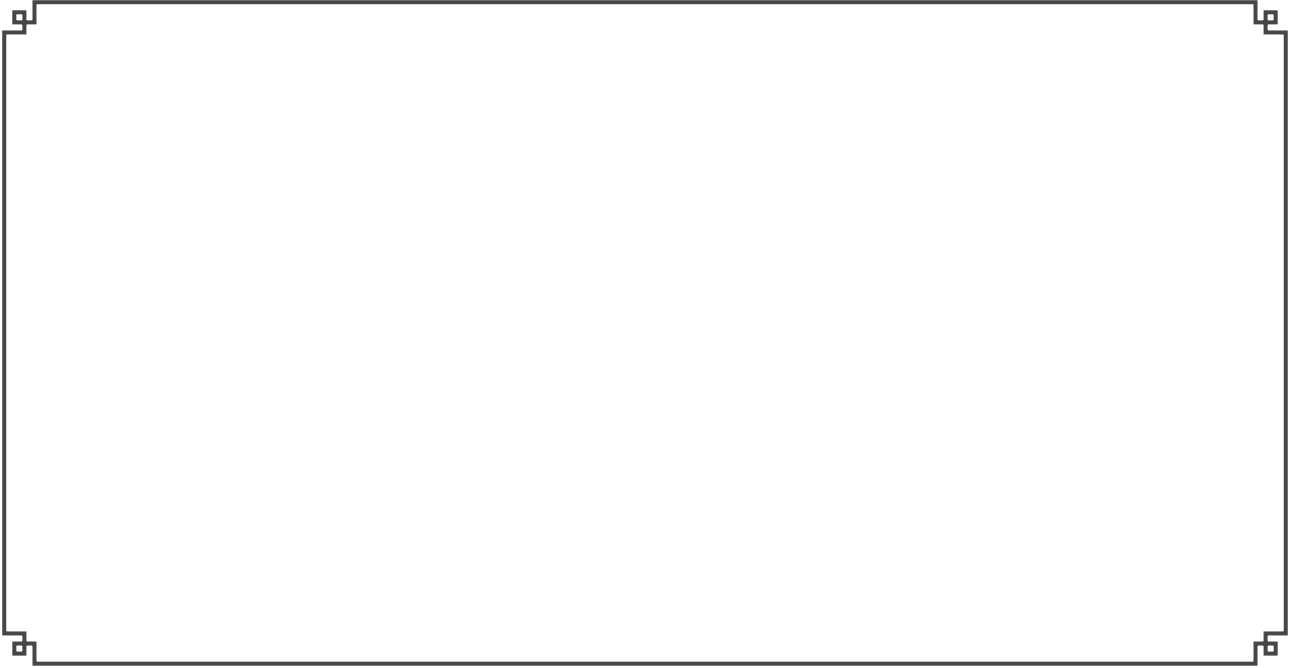


나는 그저 푸피누일 뿐,
보통의 자그마한 개야,
이야기 짓는 걸 좋아하는
나 자신보다 크고,
실보다도 커다란 이야기를 말야,
그래, 나는 그저 보통의 자그마한 개야,
다만 아주 조금 과장하는 걸 좋아하지...
아니 많아...
열렬하...
미친 듯이 말야!

각각의 소재가 어떻게 푸피누의 이야기에 쓰였는지,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

소파 옆 서랍장 두 번째 칸에 놓인 커다란 은(는)
 푸피누가 떠나는 모험의 시작이자 배경이 되었고, 벽에 걸린 나비 액자 위 몰아치는
 은(는) 푸피누가 무자비한 폭풍우 속에 내던져졌을 때 등장해,
 서랍장 맨 위에 놓인 은(는) 청록색 시계 옆에 놓인 책의 제목이자,
 푸피누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 준 어느 영혼의 소유자야,
 서랍장 맨 위 칸 쓰러지는 책들을 받치고 선 와(과) 액자 속 앵무새는,
 벽에 걸린 액자 속 해변에 푸피누가 도착했을 때 만나게 된
 푸르디푸른 성을 가진 왕국의 (이)지,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있는 빨간 머리 은(는)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울려 퍼지던 신비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야!

푸피누가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신나는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아직 가 보지 못한 지구 저편으로 떠날 수도 있고, 밤하늘 별이 빛나는 우주로 떠날 수도 있지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 일상 속 공간을 그려 보세요.



위 공간 속 소재로 이야기를 짓는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지 상상해 보고, 아래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어떤 소재들로
이야기를 만들까요?

왜 그 소재들을
선택했나요?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 될까요?

나와 언제든 다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니?

